



NXP, 노키아 벨 랩과 업계 최초 융합 5G 유무선 액세스 기술 공동시연

-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에서 업계 리더들의 연구협력 산물인 첨단 시제품 선보여

2016년 2월 23일, 서울 - 가상 네트워크 시스템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인 NXP 반도체(NASDAQ: NXPI)는 벨 랩(Bell Labs)과 유무선 통합 액세스를 지원하는 유니버설 액세스 디바이스를 시연한다고 발표했다. 벨 랩은 노키아의 산업 연구 부서이다. 이 디바이스는 하나의 모뎀으로 유선(케이블, DSL/구리선)과 무선(LTE, 5G) 표준을 지원할 수 있다.

2015년에 이 분야에서의 협력 계획을 발표한 양사는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에서 시연함으로써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게 됐다.

유무선 채널이 통합된 단일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두 개의 플랫폼이 함께 작동하는 시연을 노키아 부스(3B10/3D10)에서 진행한다. 이 시연에는 유무선 기능 모두 동일한 하드웨어 부품이 사용됐다.

이번에 선보인 첨단 프로토타입은 벨 랩의 획기적인 'XG-FAST' 10G DSL 유선 기술과 고용량 5G 밀리미터파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했다. 이로써 미래 오퍼레이터가 필요로 하는 융합 및 초고용량, 연결성 문제를 장소와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NXP의 첨단 네트워크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깊은 통찰과 벨 랩의 유무선 인코딩 기술에 대한 최고의 지식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로써 단일 NXP 아키텍처에서 고속 유선과 5G 무선을 지원하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강력한 액세스 디바이스가 개발됐다. 이 기술은 비용을 크게 줄여 서비스 제공자가 차세대 통신망을 쉽고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전력 효율성, 유연성,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선과 무선 5G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점차 복잡해지는 사용자 접근, 기능,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융합 통신망을 확장할 수 있다.

벨 랩 모바일 무선 리서치 랩 총괄인 토드 사이저(Tod Sizer)는 "전세계 통신망이 유무선 융합통신으로 나아가고 있고, 액세스 채널이 10G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은 어떤 액세스 기술로도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를 제공해, 완벽하게 설정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NXP의 실리콘 디자인과 아키텍처 전문성과 협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효했다"고 말했다.



NXP 디지털 네트워크 사업부 제품관리 부사장인 노이 쿠쾅(Noy Kucuk)은 “유무선 원격접근 기술의 융합은 5G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NXP와 벨 랩, 양사 고객이 차세대 통신망의 설계에서 한걸음 앞서 나갈 수 있게 한다”며, “벨 랩과의 오랜 협력관계는 계속 결실을 맺어 고객과 산업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키아 소개

노키아는 사람과 물건을 연결하는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다. 벨 랩과 노키아 테크놀로지의 혁신을 동력으로 삼아 이 회사는 갈수록 연결된 세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기술의 창조와 라이선스 공급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노키아는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든 첨단을 달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서비스로 통신 사업자, 정부, 대기업이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의 약속을 실현하도록 도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http://www.nokia.com>

NXP 반도체 소개

NXP 반도체 (나스닥: NXPI)는 스마트 월드를 위한 시큐어 커넥션 기술을 제공한다. NXP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용 보안 연결 솔루션의 선도 기업으로, 시큐어 커넥티드 카, 엔드 투 엔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스마트 커넥티드 솔루션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XP는 60년 이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4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NXP 관련 뉴스는 www.nxp.com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NXP 반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 에서도 NXP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